**쇼샤누리**

쇼샤잔 산에서 만들어지는 칠기는 쇼샤누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아름다움, 가벼움, 그리고 내구성으로 유명합니다. 그중에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홍색의 광택이 나는 표면 아래에서 언뜻 비치는 검은 옻칠입니다. 동유(유동이라는 식물의 씨앗에서 짠 기름)를 맨 마지막 단계에 섞음으로써 특징적인 매끈한 감촉이 생겨납니다. 또한 검은 옻칠과 주홍색 옻칠을 예술적으로 겹쳐 칠하는 수법은 일본의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법의 완성은 일본의 중세(대략 12세기에서 16세기 사이) 무렵 와카야마현 중부에 있었던 네고로지 절의 승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고로지 절은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유하여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칠기나 의식 용구 제조로 유명했습니다.

1585년, 당시에는 하시바 히데요시라는 이름이었던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에 의해 네고로지 절이 파괴되었을 때, 그 기술을 가진 승려 일부가 엔교지 절로 도망쳐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승려들이 쇼샤잔 산에서 같은 칠기를 계속 만들어왔다고 오랫동안 생각되어왔는데, 1985년에 몇몇 작품이 사원 부지 내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 이래 생산 기술이 부활하여 독특한 작품이 다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엔교지 절의 탑두(사원 부지 내에 지어진 작은 사원) 가운데 하나인 주료인(壽量院)에서 식기, 쟁반, 조리기구 등을 직접 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쇼샤누리 칠기를 사용해서 쇼진요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